

/지역 단신/

구례 수평마을 사회복지관 개관



구례군 산동면 수평마을 사회복지회관 준공식이 21일 관내 기관단체장과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복지관은 노인들의 여가 공간인 경로당과 안마의자, 러닝머신 등 16종의 운동·의료 기구가 설치된 건강관리실, 휴게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구례군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업인 복지시설을 매년 1개소씩 설치·운영하고 있다. /구례=김현호기자 dhkim@

월출산 셋길 출입 집중 단속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영암 월출산의 셋길 출입이 집중 단속된다. 현재 월출산 국립공원내 정규 탐방로는 ▲천황사~천황봉~도갑사 코스(8.6km) ▲경포대~천황봉~천황사 코스(6.7km) ▲도갑사~구정봉~경포대 코스(7.7km) 등 모두 3개 구간이며 이 구간의 셋길로 산에 오를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해 단속한다. 월출산사무소는 최근 3년간 월출산 셋길 출입 탐방객 18명을 적발했다. /영암=김현호기자 hnkim@

딸기 국내산 품종 보급 성과

딸기의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을 앞두고 재배농가에 상표사용료(로열티) 부담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산 육성품종 보급을 위한 '좋은 모 늘리기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로열티 부담이 없는 매향과 설향, 선홍, 조홍 등 국내에서 육종한 새로운 딸기 품종 120만본 포기 늘리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작황이 매우 좋다고 밝혔다. 전남의 경우 890여ha에서 딸기가 재배되고 있으며 순천과 담양, 화순, 함평 등 7개 시·군 10개 농가 6천명에서 '딸기 좋은 모 생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방제효능 탁월 친환경 농약 개발

에이스 코리아, 콩기름 등 원료

지역 중소기업이 유기화학 농약에 버금가는 방제 능력을 지닌 친환경 제재를 개발해 화제다. 23일 친환경 배 특화사업단(단장 김월수 전남대 교수)은 ㈜에이스 코리아가 콩기름, 때죽나무 등 순식물성 추출물을 원료로 은나노 기술을 더해 개발한 해충제, 곰팡이 억제제, 작물 영양제 등 친환경 제재를 이용, 최근 곡성군 고달면 등지에서 '무농약 배 과원 프로그램'을 통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제재는 방제효과가 뛰어나 뿐 아니라 농약을 반복해서 쓸 경우 생기는 농작물의 면역력 증강 효과도 미미하고, 유해성분 검사에서도 모두 '불검출' 판정을 받아 친환경성을 인정받았다. (주)에이스 코리아는 98년부터 친환경경제 개발에 착수, 지난해 말 완제품을 만들었다. 김월수 교수는 "이 제재의 경우 햇빛조임이나 물 관리 등 조건만 맞춘다면 화학농약에 버금가는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산구 분뇨 처리업체 양돈업자들 위탁 받아 위생처리장서 축산폐수 처리

연간 수천t...광주시 뒤늦게 반입 금지

축산폐수 반입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환경시설공단내 위생분뇨처리장에 수년간 축산폐수가 반입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광주시는 광산구 모 분뇨처리업체가 축산폐수를 위생분뇨처리장에 반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앞으로 축산폐수의 반입을 금지토록 결정했다. 일선 구청이 제정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도 분뇨처리업체가 축산폐수를 위탁처리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업체 등 분뇨처리업체들은 광주 대다수 양돈업체의 연간 수천t이 넘는 축산폐수를 처리해오고도 관할 광산구청으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적발된 이 업체는 지난 해 한해 동안 거래한 업체 중 파악된 3개 업체에서 수집, 처리한 축산폐수만 해도 7천여t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를 비롯해 자체 축산폐수 처리장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축산폐수를 목포와 여수에 소재한 해양처리업체 등에 위탁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 업체는 비용 부담과 이윤 감소를 이유로 이를 기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지역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갖춘 양돈업체 등은 모두 100여곳으로 모두 '퇴비화 시설'을 통한 자체 처리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대다수가 축산폐수 등을 처리비를 지급하고 위생업체들에게 처리를 맡겼을 가능성이 높아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광주시 환경시설공단 관계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축산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축산농가의 경우 자원을 처리시설로 축산폐수를 처리하도록 인·허가된 시설이므로 앞으로 축산폐수의 분뇨처리장 반입을 별도의 방침이 결정될때까지 유보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감독관청인 광산구청 관계자는 "축산 폐수 위생처리장에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확인했다"며 "양돈 농가에서 축산 폐수를 자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모기장에 TV까지...호텔급 농촌마을 정자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나주의 한 농촌마을 정자에 텔레비전이 등장했다. 무더위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마을 모정에 나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 보니 자연스럽게 TV를 마련하고 모기장까지 설치돼 밤 시간에도 주민들이 이야기를 꽃을 피우며 쉴 수 있다. 주민 김모(67·나주시 동강면 곡천리)씨는 "시원한 모정에서 텔레비전도 보고 이웃과 세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짧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스테인리스 가로등 예산 낭비"

화순군 2억여원 들여 신기리~수만리 83개 설치

화순군이 지난 5월 신기리~수만리간 2.5km구간에 7m 높이의 스테인리스스틸 가로등 83본을 설치하는 데 2억1천여 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사진) 도로변에 30m간격으로 시공된 가로등주는 일반 강관주가 1분당 15~20만 원선인데 비해, 무려 5배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가로등 보수 및 신설 예산은 연간 7천만원으로, 각 면에 가로등 3~7개 정도를 세울 수 있는데 불과하다. 주민 김모씨는 "화순읍내에 가로등주를 설치해야 할 곳이 많은데도 값비싼 스테인리스 가로등주를 사용, 결과적으로 가로등주 설치가 필요한 다른 지역이 피해를 입어 안타깝다"며 "저렴한 일반 강관주를 사용해서라도 가로등주를 더 많이 설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시가지 가로등에 비해서 농촌 가로등 설치가 미비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전남 여수 200억대 키조개 싸움 경남 남해

200억 원대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연산 키조개 서식지를 놓고 전남도와 경남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여수시 남면 금오도 인근 해역에 지정된 키조개 육성수면을 놓고 전남도와 경상남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시·군간 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남해지역 어민들이 전남도의 육성수면 지정이 일방적 지정이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남도가 지정해역에 지정된 키조개 육성수면을 놓고 전남도와 경상남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시·군간 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에 나섰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전남과 경남의 도계는 현행법에 명시된 도계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으로, 육성수면은 엄연한 여수시의 수역"이라며 "해경이 업무수역으로 사용하는 도 경계 역시 중간수역인 동경 128° 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해상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사용하는 중간수역을 기준삼더라도 육성수역은 전남도의 수역인 만큼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금오도 해역 육성수면 지정

경남도 "협의도 없이...당장 해제하라"

한 경남의 기선선인망 및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이고 연근해통발, 자방 등 각종 연근해 어선들의 조업구역"이라고 주장했다. 또 "육성수면 지정 당시 경남도(남해군)와의 의견수렴 및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육성수면 지정해제를 요구했다. /강성훈기자 kangsw@



윤달맞는 보성 삼베마을 윤달(24일~9월21일)을 앞두고 삼베마을로 유명한 보성군 북내면 유정리 주민들이 삼베를 찌기에 앞서 베메기(날실에 풀먹이는 과정)작업을 하고 있다. /보성=안규원기자 giahn@

늦더위 피서객 맞이 신안 13개 해수욕장 27일까지 개장 연기

전남지역 일부 해수욕장이 막바지 더위를 예상해 오는 27일까지 개장한다. 전남도는 22일 전국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폐장했지만 신안군 해역의 13개 해수욕장을 오는 27일까지 개장해 막바지 해수욕객을 맞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말까지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대광 해수욕장을 비롯 우전,백길, 둔목,분계,원평,하누넝,시목,배낭기미,홍도,신도,황성,추포 해수욕장 등 13곳이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지난해의 335만명보다 약 20% 증가한 40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안=조원범기자 wncho@

신안 비금-흑산농협 통합 '몸살'

"동반부실 우려" 일부 반대서명 등 반발

24일 흡수통합 2차 투표 신안군 비금농협과 흑산농협의 합병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비금농협과 주민들에 따르면 흑산농협이 고질 체납 등 경영 미숙으로 145억여원의 부실채무가 발생, 파산직전에 놓이자 최근 농협중앙회가 비금농협에 흡수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각각 10명씩 '통합협의회'를 구성한 비금, 흑산농협은 지난달 1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비금농협(조합원 1천54명) 찬성 49.9%,반대 50.1%, 흑산농협(조합원 840명) 찬성 98%,반대 0.2%로 나타나 결국 흡수통합이 무산됐다. 비금, 흑산농협은 오는 24일 흡수통합에 따른 제2차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통합을 찬성하는 측은 '비금 농산' /신안=조원범기자 wncho@

물과 흑산 수산물물을 조화시켜 경영을 합리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흑산농협은 비금농협과 사업의 동일성이 없어 동반부실 위험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양측 농협이 안고 있는 부실채무는 전액 농협신용보증기금과 예금자보호관리기금 사무국에서 전액 보전 처리해 주는 등 합병 등기일로부터 2년내에 발생한 부실채무 역시 전액 보전 처리해 준다"고 밝혔다. 비금농협 김형석 조합장은 "흡수통합론의 당위성을 지역주민들에게 8회에 걸쳐 설명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전남본부는 신안군 관내 10개농협 역시 오는 2008년 말까지는 4개 농협으로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안=조원범기자 wncho@

Advertisement for '25년 고객사랑!' (25 Years of Customer Love!) featuring a restaurant or food service. It includes text like '편안하고 깨끗한 고급객실!' (Comfortable and clean high-class rooms!), '25년 고객사랑!' (25 Years of Customer Love!), and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We will repay with even greater感动). The logo for '금수향 관동호텔 이리점' (Geumsohyang Gwandong Hotel Iri Branch) is visible.